통도사 미디어아트, 가을밤 도량을 밝히다

10월 3~29일, 통도사 경내서
빛 · 자연 · 인연 주제로 18작품
QR코드 설치해 영상 감상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가 개산 1380주년을 맞아 선보인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산문의 빛, 마음의 정원에서 인연을 만나다' 는 10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개산 1380주년을 맞아 선보인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산문의 빛, 마음의 정원에서 인연을 만나다'가 추석 연휴 기간 큰 호응을 얻으며 가을밤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전시는 10월 3일부터 29일까지 통도사 경내 전역을 배경으로 빛과 자연, 인연(因緣)을 주제를 디지털 예술로 풀어낸다. 사찰의 다섯 문(영축산문·영축총림문·일주문·천왕문·불이문)과 무풍한송로, 성보박물관 등 주요 공간을 따라 총 18가지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설치돼 관람객이 산문을 따라 걸으며 불교미학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10월 3일 예정됐던 공식 개막식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통도사는 "비로 인해 첫날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전시는 예정대로 운영된다"며 "다만 비가 내릴 경우 관람객 안전을 위해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일기예보와 통도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파사드, 인터랙티브 콘텐츠, 레이저쇼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불교적 상징과 자연 풍경, 사찰의 역사와 정신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각 산문에는 '통도사의 부름', '빛이 머무는 길', '마음의 배', '머무는 자리' 등 상징적 주제가 더해졌으며, 문마다 QR코드를 통해 관람객이 인연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성보박물관 앞에서는 메인 콘텐츠인 공연형 영상 '하나의 연(緣)'이 상영된다. 조명과 영상, 음향이 어우러진 퍼포먼스형 미디어 작품으로, 사람과 사찰, 불교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상영시간은 오후 7시 30분과 8시 30분 두 차례 예정이었으나 관람객 증가로 7시, 8시 회차가 추가돼 총 네 차례(19:00/19:30/20:00/20:30) 운영된다.

특히 무풍한송로 구간은 자연의 어둠과 조명이 어우러져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으로 꼽히며, 불이문 앞 '빛의 정원' 구간은 인연과 공존을 상징하는 장엄한 공간 연출로 주목받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단위 관람객과 관광객이 몰리며 도량 곳곳이 조명과 영상으로 물들었다. 관람객들은 "산사의 고요함과 빛의 예술이 어우러져 감동적이었다", "통도사가 예술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질 줄 몰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는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도보 입장 마감은 오후 8시 30분이다. 차량은 오후 5시 30분부터 출입이 제한된다.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 미디어아트는 매해 발전하고 있다. 올해는 사찰 경내 전체를 활용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천년고찰의 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비로 인해 개막은 미뤄졌지만 통도사의 '빛과 인연의 길'은 계속된다"며 "가을밤 도량을 걸으며 불교의 정신과 자연의 조화를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원 1주년 대마도 황룡사, 한일 화합 상징 '우뚝'

비로자나불 개금불사 회향식
제주 4·3 희생자 공양탑 참배
선조 이연왕희 묘 헌다례도


개원 1주년을 맞은 대마도 황룡사가 10월 10일 '비로자나불 개금불사 회향 및 개원 1주년 기념법회' 를 봉행하고 한일 불교 교류 활성화를 발원했다.

일본 대마도(對馬島)에 세워진 최초의 한국 사찰 황룡사(주지 보혜 스님)가 10월 10일 '비로자나불 개금불사 회향 및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지난 1년간의 포교 성과를 되돌아보고, 대마도에 깃든 한국의 역사와 아픈 발자취를 되새기며 한일 불교 교류의 가치를 확장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범어사 재무국장 도은 스님을 비롯해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과 부산시민취타대 및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보혜 스님은 "대마도 주민들과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황룡사 개원의 밑거름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사랑과 인연으로 맺어진 이 도량이 자비의 도량으로 빛나도록 정진하겠다"며 "모든 대중의 공덕으로 황룡사가 한일 간 불교문화 교류의 중심 도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법문에서 "과거의 근심과 미래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 부처님을 모시는 참된 점안의 의미"라며 "맑은 마음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눈을 뜰 때 황룡사가 금빛 광명의 도량으로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회 후에는 대마도 북서쪽 좌호만(佐護湾)에 위치한 제주 4·3사건 희생자 공양탑을 찾아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참석 대중은 수장(水葬)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발원했다.

이어 11일에는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의 딸 이연 왕희(李姸 王姬)를 추모하는 헌다례가 봉행됐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납치돼 대마도로 끌려온 이연 왕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1613년 생을 마감했다. 대마도 우나쓰라(女連) 마을에는 현재 '조선국왕희묘(朝鮮國王姬墓)'가 조성돼 있다. 정오 스님과 보혜 스님을 비롯한 대중은 헌다례로 왕희의 넋을 위로하고, 한일 간 평화와 화합을 발원했다.

한편 황룡사는 기장 청량사 주지이자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보혜 스님이 지난해 8월 23일 대마도 히타카츠항 인근 이즈미 마을에 창건했다. 지난 1년간 15차례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현지 주민과의 교류를 이어왔으며, 일본 내 한국 사찰로서 불교문화 교류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대마도=이도경 부산지사장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에 자관 스님

"종도와 함께 교구 도약 이루겠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 제21대 원장에 자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10월 10일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사에서 진행됐으며, 부산교구 소속 스님 60명이 참석했다.

자관 스님은 "부산 태고종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종도들의 역량을 모으겠다"며 교구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부산교구종무원의 중심은 언제나 종도들"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종도 수를 확대하고, 부산교구종무원사 신축을 추진해 안정된 수행과 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구 간 연대와 교류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스님은 "오는 11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고종 국제수계법회에 부산 지역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교구의 결집력과 종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관 스님은 부산 동래 자비암 주지로,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과 동래경찰서 경승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과거 제18대 부산교구종무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박병금 시인, 통도사 영축문학상 대상

10월 12일 경내 해장보각서
상금 1000만원과 상패 수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0월 1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7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불교문학의 진흥과 수행정신의 문학적 계승을 위해 마련된 영축문화상은 통도사가 주최하고 영축문학회가 주관한다.

제7회 영축문학대상에는 박병금 시인의 시 '장경각 뜰에는 고래가 산다'가 선정됐다. 박병금 시인은 2005년 〈문학세계〉로 등단해 일상 속에서 발견한 깨달음과 자비의 정서를 시로 형상화하며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부산여성문학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강서문인협회 자문위원이다. 영축문화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견강암, '가을 효(孝) 산사음악회'

10월 15일, 경내 특설무대



부산 사상구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이 10월 15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가을 효(孝)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자비·사랑·행복·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주제로 마련돼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가을 정취를 나눴다.

향공 스님은 "오늘 산사음악회는 부처님 법인 자비와 사랑, 행복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혜의 울림이 시작되는 법회"라며 "이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등불이 되어 번뇌는 잦아들고 자비의 꽃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무대에는 지역 가수와 예술인들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어르신들에게는 TV,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선풍기, 이불 등 푸짐한 경품이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64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
일시 : 2025년 10월 25일(토) 오전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BTN 불교TV
태학산자연휴양림 제9회
태학사 가을 음악회
2025. 11. 1(토) 오후 5시
태학사 특설무대
천안시 동남구 휴양림길 159
박시환 윤성 손진욱 조연호 정홍일 강성희
BTN 라디오
|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태학사 | 주관 | BTN 불교TV
| 후원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농협, 스마트치과, K-솔루션, 전망대365광고
| 문의 | 041-566-7491